
오픈소스, AI 등 글로벌 디지털 동향 조사를 위한 MMC 2025 참관 결과

- '25. 3. 2(일) ~ 3. 8(토), 스페인 바르셀로나 -

2025. 3.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MWC는 독일 IFA, 미국 CES와 함께 세계 3대 IT전시회로 무선 통신 모바일 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 점차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센서, 클라우드,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가는 중
-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MWC 2025 참관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여 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MWC 2025 (Mobile World Congress) 행사 >

- (개요) '9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산업전문 전시회
- (슬로건) 융합(Converge), 연결(Connect), 창조(Create)
- (기간/장소) 2024. 3. 3(월) ~ 3. 6(목) /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Fira Gran Via)
- (규모) 전 세계 205개국, 약 2,700개 업체, 약 10만명 방문자 예상
- (전시품목) 5G·IoT, 모빌리티, AI, 블록체인, 콘텐츠, 로봇틱스 등 ICT 관련 전반

- (기술 동향 파악) 오픈소스, AI 등 핵심 디지털 기술의 동향 파악 및 주요 글로벌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수집
- (참가기업 방문) 국내·외 주요 참가기업 부스 참관과 담당자 면담을 통한 지원 수요 파악 등 의견 청취 및 네트워크 확보

□ 출장 일정 : '25. 3. 2(일) ~ 3. 8(토) (5박 7일)

□ 출 장 지 : 스페인 바르셀로나

□ 출장자 및 담당업무

성명	직급	주요업무
심정민	수석	- 사업 기획에 활용할 오픈소스, AI 등 글로벌 디지털 동향 파악 - 국내·외 참가 기업과 네트워킹,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수요 파악 등

※ 출장 효율화를 위해 우리원 참관단 연계 출장

2

세부 추진 내용

□ 전체 일정(안)

일 정	방문지역	시간	내용
3.2(일)	인천 → 바르셀로나	11:15~ 17:50	• 이동(인천 → 바르셀로나) / OZ511
3.3(월)	바르셀로나	9:00~ 12:00	• 참관단 공식일정 및 세부사항 점검 - 일정 및 세부 사항 점검, 전시관련 정보 확인 - 참관단 전체 회의 진행
		13:00~ 18: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해외 글로벌기업(화웨이, 샤오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중심
3.4(화)	바르셀로나	9:00~ 12: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해외 글로벌기업(IBM, 구글, MS, 오라클 등) 중심
		13:00~ 18: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국내 글로벌기업(삼성전자, SKT, KT, LG U+ 등) 중심
3.5(수)	바르셀로나	9:00~ 12: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한국 오픈소스, AI 기업(레블업, 노타, 브이스페 이스 등) 및 한국관 중심
		13:00~ 18: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국내 스타트업 및 우리원 지원기업 중심
3.6(목)	바르셀로나	9:00~ 12:00	• 행사 참여 국내 디지털기업 면담 - 해외진출 애로사항 수렴 및 진출전략 수립
		13:00~ 18: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 국가관 중심
3.7(금) ~3.8(토)	바르셀로나 → 인천	9:00~ 16:00	• 참관단 정리회의 개최 - 참관단 Wrap-Up 미팅 - 전시회 참관 내용 공유 및 보고서 작성 계획 논의 등
		20:40~ 17:05(+1)	• 귀국(바르셀로나→인천) / OZ512

※ 전시기간(3.3~6) 중 참관단 집결회의(계획 및 세부 사항 점검, 09시) 및 해산회의(참관 결과 공유 및 안내사항 전파, 17시) 추진(장소 : 전시장 1홀 입구)

바르셀로나 모바일 박람회(MWC 2025) 개요

- 전시명 : 모바일 국제 박람회(MWC: Mobile World Congress)
 - * 1987년 시작한 이동통신 박람회로 3대(CES, MWC, IFA) IT박람회 중 하나
- 기 간 : '25. 3. 3(월) ~ 3. 6(목)
- 장 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Gran Via
- 면 적 : 120,000m²
- 규 모 : 세계 200여개국 2,700개 기업 및 100,000여명 참관 예상
- 주 체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 Association)
- 주요 전시품목 : 무선통신 모바일 생태계 전 분야, 모바일 컴퓨팅 및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AI, 5G, IoT, VR/AR, 이동통신장비, 센서, 이미징, 클라우드 등
- 주 제 : 'Converge, Connect, Create(융합하라, 연결하라, 창조하라)'
다양한 모바일 기술을 융합하고,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솔루션을 창조하라

< 최근 3년간 MWC 주요 키워드 >

연도	주요 키워드
2023년 (2.27~3.2)	①5G 가속화, ②가상현실과 메타버스, ③오픈 네트워크 ④핀테크 ⑤디지털 모든것
2024년 (2.26~2.29)	①5G와 통신, ②모든 것을 연결하기, ③인간과 AI, ④제조 DX, ⑤디지털 DNA 등
2025년 (3.3~3.6)	①5G Inside, ②Connect X, ③AI+, ④Enterprise Re-invented, ⑤Game Changers, ⑥Our Digital DNA

3

주요 내용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한국) 총 187개 기업이 참여한 한국은 자동차 분야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등 AI와 네트워크가 결합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
 - 특히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에 위한 4YFN(4 years from now)에는 전체 한국기업 절반에 가까운 78개 기업이 참가하여 미래 가능성 확인

<p>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한국)</p>	<p>▶ 업계 최초 5G 특화망 기반 레드캡(Private 5G Reduced Capability, P-5 RedCap) 기술 검증 결과 전시</p> <p>→ 자동물류로봇(AMR) 등 고성능·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장비에만 적용되던 기술을 차량검사장비 등 제조 공정에도 적용하여 미래 스마트 제조 솔루션의 가능성 제시</p> <p>→ 통신 단절·지연이 거의 없고 초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어 스마트 제조 혁신에 필수적인 다량의 산업용 로봇이나 무선장비에 대한 중앙집중적 통제가 가능</p>	
<p>엘지유플러스 (한국)</p>	<p>▶ 2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Alice)' 공개</p> <p>→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인 에이로봇과 협력 개발</p> <p>→ LG유플러스가 개발한 AI 모델 '익시'가 적용되어 있으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요청받은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p> <p>→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퀴즈를 낸 뒤, 정답을 맞히면 직접 손으로 상품을 들어 전달하며,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고 물병을 건네주는 등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능력을 선보임</p>	
<p>하이코어 (한국)</p>	<p>▶ 모델솔루션과 공동 개발한 'AI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공개</p> <p>→ 올해 9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범 서비스 도입 예정(실증 단계)</p> <p>→ 면세 구간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캐리어를 적재한 채 자율주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특히 이동약자 및 영유아 동반 여행객들도 사용할 수 있어 공항 내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p> <p>→ 최종 목적지 도착 후 자동으로 회귀하는 기능 탑재</p>	
<p>스튜디오랩 (한국)</p>	<p>▶ 촬영 자동화 솔루션 탑재 로봇 '젠시 PB(GENCY PB)' 공개</p> <p>→ 지능형 로봇틱스로 커머스에서 활용되는 상업용 사진 촬영 및 인물 촬영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p> <p>→ AI가 실시간으로 피사체를 분석해 최적의 촬영 구도를 잡아주며, 피사체의 특징을 부각하는 커머스용 사진을 전문 사진 작가 대신 촬영 가능</p> <p>→ 모델의 특징부터 제품의 특징, 배경 정보 등을 분석하여 커머스 기업에서 원하는 감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구현</p>	

○ (중국)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해 CES보다 MWC에 집중한 중국은 참가 규모는 3위*이나, GLOMO 어워즈 수상** 절반을 휩쓰는 등 저력 과시

* 1위 스페인(744개, 개최국), 2위 미국(443개), 3위 중국(344개), 4위 한국(187개) 등

** 총 47개 중 25개 기업 수상, 대상 격인 'CTO Choice'는 차이나모바일 및 화웨이 수상





-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활용한 스마트 카 등 MWC25에서 가장 압도적 기술 비전을 제시하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기회로 활용

화웨이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초 5G-A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콰푸(Qiapu)' 공개 → 1만 5,000km 떨어진 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동관(중국)에 있는 자율주행차를 실시간 원격 운행하는 기술을 선보임 →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레주 로봇의 공동 개발 ▶ MWC25에서 최대 전시부스(약 9,000m² 규모)로 존재감 ↑ ▶ 글로모 어워즈 'CTO Choice'를 포함, 총 8개 부문 수상 	
샤오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속 350km에 이르는 슈퍼카급 전기차 'SU7 울트라' 공개 → 샤오미의 AI 어시스턴트 '샤오아이'가 차량과 연동돼,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운전 환경을 제공 → 제로백 1.98초, 출력 1,073마력(예상) 등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4도어 양산차라 자평 	
차이나텔레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드론'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며,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플라잉카 '샤오펑(XPENG) X2'의 자율주행 시승을 통해 미래형 교통수단의 가능성 제시 → 현재 테스트 단계이나 최대 적재량 235kg, 최대 속도 시속 130km, 배터리로만 25~30시간 이동 가능 ▶ 국유 통신사로써 'AI-네이티브 RAN' 기술 활용사례 공개 → 로봇 개가 특정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경로 계산, 사물 인식 등을 각 기지국 내장 AI칩을 통해 빠르게 수행 	
차이나모바일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펑치(Fengqi)'와 반려견 로봇 '샤오리(Xiaoli)' 공개 → 샤오리는 방문객에게 앞발을 내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기분좋은 표정을 짓는 등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선보임 ▶ 글로모 어워즈 'CTO Choice'를 포함, 총 4개 부문 수상 	
유니트리 로보틱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대신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 'G1' 공개 → 높이 1.3m, 무게 35kg, 접었을 때 69*45*30cm 크기로 운반이 용이하며, 시속 7.2km로 이동 가능 → 관절 역할을 하는 43개의 모터가 장착되어 유연한 동작 수행이 가능하며, 3개의 손가락을 움직여 계란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물체도 정밀하게 조작 가능 → 우수한 균형감각과 운동능력으로 세계 최초로 사이드플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뒷걸음질 치기, 몸을 뒤로 꺾기, 관람객들과 춤을 추는 모습 등을 선보임 	

○ (그 외 국가) 스타로보틱스(스페인), 레노버(홍콩), KDDI(일본), Viettel(베트남) 등 로봇 중심의 다양한 AI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공개

<p>인로빅스 (스페인)</p>	<p>▶ 재활 치료 지원 로봇 솔루션 '인로빅스 리هاب'(Inrobics Rehab) 공개</p> <p>→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운동기능 저하, 신경계 손상, 인지 장애 등이 있는 개인의 재활 훈련을 지원하는 로봇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 제공(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p> <p>→ 3D 카메라 및 웨어러블 팔찌를 활용해 운동범위, 반응 시간 등 재활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료 효율성 향상</p>	
<p>스타로보틱스 (스페인)</p>	<p>▶ 자율주행 감시 로봇 '와치봇 서베일런스(Watchbot Surveillance)' 공개</p> <p>→ 360° 비디오 녹화 및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자율주행 가능</p> <p>→ 열화상 카메라와 및 야간 투시 기능을 통해 어두운 환경이나 열원 감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감시 가능</p> <p>→ 양방향 오디오 시스템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로봇의 주변 소리를 듣고 내장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 원격지에서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p> <p>→ 스타 로보틱스의 자체 개발 클라우드 플랫폼인 AUROS와 연동 되어, 원격으로 로봇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로를 계획함</p>	
<p>레노버 (홍콩)</p>	<p>▶ MotoGP 서킷의 트랙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율주행 로봇 'NTB-01' 공개</p> <p>→ 레노버와 이탈리아 유명 모터사이클 기업인 두카티의 기술 협업으로 개발된 자율주행 로봇으로, 독립적으로 서킷을 주행하며 상세한 트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p> <p>→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확성을 향상 시켜 다양한 설정 변경이 트랙 조건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능</p> <p>→ NTB-01의 최고 속도는 약 200mph(시간당 321km)에 달함</p>	
<p>KDDI (일본)</p>	<p>▶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의 '이동식 편의점' 자율주행차 공개</p> <p>→ 차량 내부에는 과자, 음료수,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상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물건을 채우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정해진 지역까지 배송하는 AI 자율 배송 시스템을 갖추</p> <p>→ KDDI의 통신 인프라를 갖춘 생성형 AI가 배송 차량, 물류 트럭 등으로부터 얻는 대량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p> <p>→ 5시간 동안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일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행 중</p>	
<p>Viettel (베트남)</p>	<p>▶ '자율 상품 분류 로봇(AGV)' 공개</p> <p>→ 5G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물류 분야의 5G 애플리케이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로봇 공개</p> <p>→ 로봇이 소포를 지역별 배송 가방으로 보내주는 자율 상품 분류 기능을 통해 운송 프로세스와 창고 관리를 최적화</p> <p>→ 제조업 허브로 떠오른 베트남의 물류 인프라 혁신</p>	

○ (SmartMobility Summit) MWC25는 Connected Industries 컨퍼런스를 통해 자동차, 항공, 물류, 해상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청사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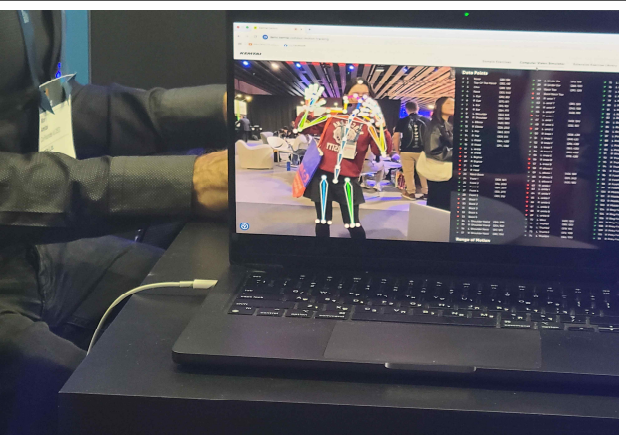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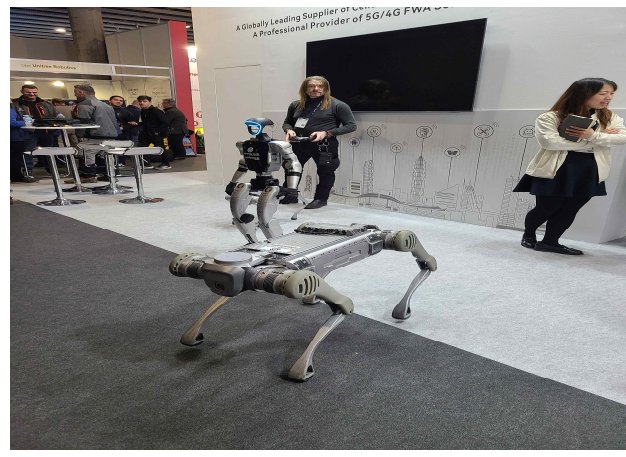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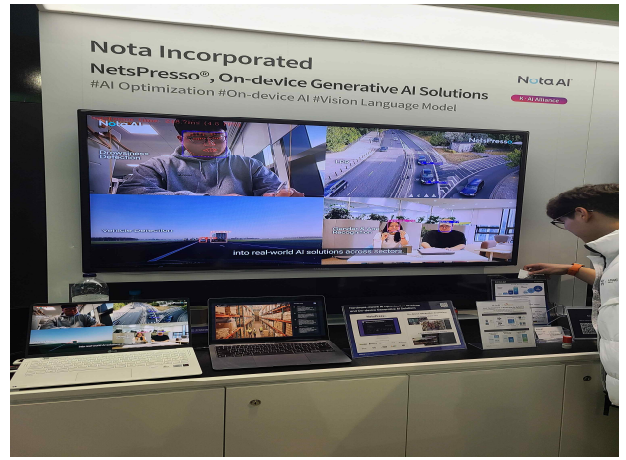
주제 및 세션명		세부 내용
인프라 혁신	백본 구축 - 현대 모빌리티의 기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네트워크의 핵심과 현대적 모빌리티 및 물류의 기반으로서의 역할 논의 ▶ 모빌리티 부문이 실시간 데이터와 자동화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5G는 대규모의 즉각적인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고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는 유연한 인프라를 제공 → 안정적이고 확장성있는 연결, 실시간 데이터 처리, 보안 강화 등을 위해 견고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의 잠재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레벨4 자율주행으로의 전환, 그에 따른 모빌리티 생태계 재편에 대한 논의 →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 안정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클라우드 및 AI 기술의 통합, 그리고 생태계 전체 협업에 대한 시급성 등을 공유 → 또한 내결함성의 개선, 복잡한 규제에 대한 조사, 끊임없는 사용자 경험 확보 등 레벨4 자율주행 운영상의 해결과제 등을 논의
기술 혁신	모빌리티 강화 - 네트워크 API와 AI가 혁신을 주도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 생태계 참여자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솔루션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등 모빌리티 및 운송의 실제 사례 공유 → 자율 주행차, 도시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및 기타 자율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GSMA Open Gateway Initiative와 AI가 지원하는 Network API는 모빌리티 및 운송 서비스의 성능, 유연성 및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킴 → 네트워크 API, AI, 보안은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영과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공유
수익화 전략	성공의 열쇠 - 수익화, 파트너십 및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 생태계의 파트너십이 수익 창출을 위한 성공을 거두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 → 파트너십의 실제 사례 연구 및 실무 경험을 통해 모빌리티,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공유하며, 이러한 협업이 어떻게 혁신과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솔루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논의 → 모바일 네트워크 진화는 모빌리티 부문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실시간 데이터 교환, 고속 연결 및 저지연 통신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
세션 참여 기업	 (지식파트너)	<div>    </div> <div> (후원사) </div>

□ 행사 참여 기업·기관 간 네트워킹

- MWC 2025 행사 참여 국내·외 주요기업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오픈소스, AI 등 관련분야 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동 교두보 마련
 - 국내 관련 기관(창업진흥원, KOTRA 등) 면담 등을 통해 디지털 트렌드 변화 속 사업추진 방향 정립 및 향후 기관 간 협력방안 모색
 - 전시 참여 국내 우수 디지털 기업 면담을 통해 오픈소스 관련 사업 지원 필요사항 확인 및 해외진출 애로사항 수렴

□ 행사 사진





참고

MWC 2025 NIPA 참관단 명단

본부명	팀명	성명
메타버스본부		조영진 본부장
지역디지털본부		정수진 본부장
AI인프라본부	AI반도체팀	이길영 수석
	AI전략팀	박근하 수석
AI융합본부	디지털헬스신성장팀	노승우 책임
	AI확산팀	김윤하 책임
지역디지털본부	지역디지털기획팀	김성경 책임
	디지털인재양성팀	이병주 책임
SW미래본부	SW산업팀	심정민 수석
	디지털법제도팀	장연수 선임
메타버스본부	메타버스융합팀	유한종 팀장
경영기획본부	ESG혁신팀	안재혁 수석
	안전총무팀	민지영 책임
합계		총 13명